

洪 文 植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金 鐸 一

翰林大學 學長

韓國 婦人의 不妊症實態에 關한 考察

1. 分析背景 및 目的
2. 分析資料
2. 韓國婦人의 不妊實態
4. 要約 및 結論

1. 分析背景 및 目的

幸福한 家庭生活을 當爲토록 하기 위하여 願하지 않는 妊娠은 事前에 防止하고, 必要한 妊娠은 願할 때에 이룩시켜 어느 年齡에서 어떤 間隔으로 언제 出産을 할 것인가를 調整하여 適正數의 子女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家族計劃의 機能이다. 願하는 出産을 適期에 成就시킨다는 觀點에서 家族計劃은 妊娠을 하지 못하는 夫婦에 대하여 妊娠이 可能하도록 그 対策을 講究하는 것도 家族計劃의 當然한 一部라고 定義되고 있다.¹⁾

子女養育負擔이나 家族健康問題 및 團樂한 家庭生活을 꾸미려는 立場에서 본다면 多産 現象은 家庭的으로 보다 幸福할 수 있는 要件이 못되지만 人口增加라는 社會的인 問題때 문에도 決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家庭에서 아기의 存在, 卽 子女를 갖는 다는 것은 오랜 옛적부터 즐거움의 源泉이 된다고 表現되어 왔다. 種族保存이라는 生物的인 本能을 떠나서라도 家庭을 形成하여 子女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거의 共通的인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必要 以上の 妊娠과 出産은 오히려 苦痛이요 不幸일 수 있다. 近來에는 避妊手段이 發展되어 어렵지 않게 出産調節이 可能하므로 家族計劃이 漸次 生活化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結婚하는 모든 夫婦가 빠짐없이 곧 出産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子女를 願하지만 出産하지 못하므로 해서 家庭破綻의 큰 不幸까지 招來하는 境遇도 있다.

出産을 하지 못하는 問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人類歷史와 더불어 함께 있어 온 일이다.²⁾ 可妊年齡層의 男女가 一定期間의 正常的인 性生活을 하여도 妊娠하지 못하는 狀態를 不妊症이라고 한다. 한번도 妊娠하지 못한 狀態를 原發性 不妊症(Primary infertility)이라 하고, 한번 또는 몇번의 妊娠經驗을 가진 다음에 다시 妊娠을 못하는 境遇를 統發

1) 金容完 等: 受胎調節法, 家族計劃研究院, 1974, p. 15.

2) 李熙永, 裴炳胃: 不妊症의 原因과 治療, 壽文社, 1967, p. 14.

性 不妊症 (Secondary infertility)이라 한다.³⁾ 妊娠치 못하는 期間의 基準은 學者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나 最小限 1年以上에서 3년까지로 본다. 그 期間을 1年으로 보는 學者^{4) 5) 6)}도 많지만 李熙永 等⁷⁾은 3年으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라고 하고 있다.

不妊症의 原因은 多様하며 그 診斷도 複雜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長時日을 要한다.⁸⁾ 1958年 以前에는 不妊症 婦人들 가운데 갖은 努力에도 不拘하고 妊娠能力을 찾게 되는 境遇가 흔하지 않았지만 그 以後 排卵의 根本的인 機轉이 医薬品에 의해 調整될 수 있게 되므로써 美國에서는 長期間의 不妊症患者 가운데 35퍼센트는 治療結果로 妊娠이 可能케 되었다.⁹⁾ 이러한 治療는 醫術의 發展과 더불어 앞으로 날로 向上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不妊의 原因은 女性側일 수도 있고 男性側일 수도 있다. 李鶴松 等¹⁰⁾은 不妊症의 原因이 男女에게 2對3 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性別原因을 大別하여 女性側의 不妊要素로 判明된 境遇가 60퍼센트, 男性側인 境遇가 40퍼센트의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¹¹⁾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女性側에만 그 責任을 轉嫁해온 傾向이 높았지만 이제는 醫學的 診斷에 의해 責任所在을 밝히려는 認識이 차츰 普遍化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不妊症患者의 發生頻도가 어느 程度인지 提示된 統計는 없다. 不妊症에 관한 臨床研究는 여러번 있었고 그러한 研究에서 産婦人科來院患者에 대한 不妊症患者의 比率를 提示한 例는 있지만 아직도 一般 婦人들의 몇퍼센트가 不妊症인지 그 統計를 提示할 수 있는 研究는 全無하다. 研究된 不妊症統計資料의 例를 들면 金海龍 等¹²⁾은 發生頻도를 12.86퍼센트, 李恩淑¹³⁾은 16.63 퍼센트, 李教雄¹⁴⁾은 5.59퍼센트等 各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統計는 모두가 病院의 産婦人科 外來患者 가운데 不妊症을 呼訴한 婦人들의 比率이다. 그리고 觀察된 對象不妊症患者를 定義하는 不妊期間도 各各 相異하다. 研究論文이나 著書等에서 가끔 이와같은 統計를 우리나라 不妊症患者의 一般統計처럼 引用하여 우

3) 金錫煥: 婦人科學, 一朝閣, 1968, p. 347.

4) Novak, Edmund R., Georgeanna S. Jones and Howard W. Jones: Novak's Textbook of Gynecology, The Williams & Wilkins Company, U. S. A., 1975, pp. 625-626.

5) Cherry, Sheldon H.: Understan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Books Merrill Company, Inc., New York, 1973, p. 170.

6) 柳聖鎔等: "不妊女性에 있어서 Clomiphene 治療에 대한 臨床的 考察," 大韓産婦人科學會雜誌, 24:9, 1981, p. 854.

7) 李熙永, 裴炳胃: 前掲書.

8) 朱갑순: "原發性不妊症의 分析評價," 大韓不妊學會雜誌, 4: 2, 1977, p. 35.

9) Benzamin, Annette Francis and Bry Benzamin, New Fact of Life for Women, U. S. A., 1969, pp. 166-167.

10) 李鶴松, 李熙永: 家族計劃, 東明社, 1966, pp. 46-47.

11) 文英基: "不妊症에 있어서의 內膜性因子," 中央醫學, 35: 3, 1978, p. 151.

12) 金海龍, 尹憲植: "女性不妊症에 대한 外來統計的 考察," 大韓産婦人科學會雜誌, 3: 1, 1957, p. 67.

13) 李恩淑: "韓國不妊婦 1,520名에 대한 原因的 考察," 大韓産婦人科學會雜誌, 4: 1, 1961, p. 398.

14) 李教雄: "不妊症의 統計的 考察," 大韓産婦人科學會雜誌, 7: 7, 1964, p. 349.

리나라 不妊症患者을 10퍼센트 水準으로 說明하는 境遇를 볼 수 있다. 이런 境遇에 原著의 文獻에서 그 統計를 確認하지 않는 限 来院患者에 대한 不妊症 統計가 一般婦人들에 대한 統計로 認識되기 때문에 그 內容은 論理的으로 不當擴充의 誤謬로 看做된다. 이에 家族計劃事業에서 避妊指導와 더불어 出産을 願하면서 娠을 못하는 婦人들에 대한 娠指導를 위하여 可妊年齡層의 婦人 가운데 不妊症과 關聯된 事項을 考察해 보는 것이 意義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美國의 境遇, 不妊症患者은 全体 結婚夫婦의 12퍼센트 程度인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¹⁵⁾ 또한 娠이 可能한 夫婦의 56.5퍼센트가 結婚生活 1個月 以內에, 그리고 78.9 퍼센트가 6個月 以內에 娠한다¹⁶⁾ 고 한다. 한편 Parson等¹⁷⁾은 結婚 1個月內에 25퍼센트, 6個月內에 63퍼센트, 9個月內에 75퍼센트, 1年內에 80퍼센트 그리고 18個月이면 90퍼센트가 娠한다고 했다. 大体로 不妊症 婦人이 10퍼센트 内外로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不妊症이 어느 程度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비록 臨床的 定義에 立脚한 調査資料를 가지고 追求하는 것은 아니지만 本考에서는 全國 出産力 調査過程에서 応答된 婦人들의 娠能力 狀態가 어떠한지를 考察하고 出産關係事項을 檢討하므로써 家族計劃事業을 위하여 不妊症과 關係되는 資料를 提供코져 한다.

婦人들 스스로가 自身이 娠不能이라고 생각하는자가 얼마나 되며 全体 既婚女性 가운데 出産을 못한 婦人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事項들을 考察하면 不妊症에 의한 우리 나라 婦人들의 全般的인 問題性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有用한 資料로 利用될 수 있을 것이다.

2. 分析資料

우리나라의 不妊症에 관한 統計는 前述한바와 같이 産婦人科에 来院한 患者中에 몇퍼센트의 不妊症患者가 觀察되었다던가하는 程度에 不過하다. 臨床的으로 定義되는 不妊症患者의 全國的 統計를 正確히 導出할 수 있는 既存研究資料는 全無하다

이러한 與件이기 때문에 全國出産力이나 家族計劃實態調査 資料에서 婦人들의 出産經歷 및 現存子女數에 관한 既存統計와 娠能力 與否等の 反應을 中心으로 하여 娠을 하지 못하는 婦人들의 實態를 把握코져 試圖했다. 이에 本研究에서는 1978年度 家族計劃事業 評價調査¹⁸⁾에 의하여 蒐集된 資料 일부를 分析利用 하고 그 外에 1976年度の 全國出産

15) Novak et al., :Ibid.

16) Whitelaw, M. G. : "Statistical Evaluation of Female Sterility." *Fertility & Sterility*, 11:418, 1960.

17) Parson, Langdon and Sheldon C. Sommers: *Gynecology*, 2nd ed., W. B. Saunders Company, Philadelphia, 1978, pp. 379-380.

18) 卞鍾和, 高甲錫: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産力實態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9.

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¹⁹⁾ 結果에 의한 몇가지 統計를 利用 하였다. 여러차례 實施된 이러한 調査 資料를 모두 깊이 分析한다면 보다 有用한 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與件이 許諾치 못하여 일부 既存統計를 活用하는데 不過하므로 資料의 制限性이 不可避함을 指摘할 수 있다. 既存統計는 變數의 分類나 變數의 값에 대한 grouping 또는 製表樣式이 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比較하는데 問題가 있다. 뿐만 아니라 1978年度 資料는 全國的으로 標本抽出된 滿 15-49歲 有配偶婦人에 관한 것이고 1976年度 資料는 같은 年齡層의 既婚婦人에 관한 것이므로 有配偶婦人과 既婚婦人이라는 對象의 差異도 있다. 또한 이러한 調査는 当初부터 不妊患者의 統計를 얻기 위한 試圖가 全然 考慮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醫學的으로 定義되는 不妊症 統計를 導出할 수 있는 資料蒐集은 不可能 했던 것이다. 다만 妊娠이나 出產經驗等의 情報에서 最小限 妊娠 가능한 婦人들의 比率을 把握할 수 있기 때문에 不妊症과 관련된 內容의 統計를 間接的으로나마 提示할 수 있다는 데에 그 意義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韓國婦人의 不妊實態

婦人들의 妊娠能力은 年齡과 큰 關係가 있다. Parson等²⁰⁾ 에 의하면 女性은 20~24歲에서 妊娠能力이 가장 왕성하고 40歲以後는 漸次 激減하며 이와는 달리 男性은 45歲까지도 거의 變化가 없고 그後에 惡化되기는 하지만 70歲가 넘어서도 正常的인 精子를 生成하는 境遇도 많다고 한다. 最近「프랑스」精液銀行機構는 1982年 2月 18日字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誌에 寄稿한 研究報告에서 女性은 30~35歲 사이에 妊娠能力이 急激히 減退되어 30代 후반이 되면 더욱더 떨어진다고 밝혔다.²¹⁾ Guttmacher²²⁾의 調査에서 女性은 結婚年齡에 따라 不妊症의 頻度가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는 事實도 女性들의 年齡에 의한 妊娠能力의 큰 變化를 說明해 준다. 그에 따르면 10~20歲 結婚群에서는 不妊症이 4.5퍼센트인데 비해 35~40歲 結婚群에서는 31.3퍼센트나 되며 40歲 以上の 結婚群에서는 무려 70퍼센트에 達하고 45歲 以上の 結婚群에서는 妊娠하는 例가 極히 드물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有配偶婦人의 初婚年齡別 分布比率은 다음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大多數가 妊娠能力이 왕성한 年齡에서 結婚하였음을 알 수 있다. 即, 24歲 以下에서 結婚한 婦人이 90.5 퍼센트 이고 25~29歲에 結婚한 婦人이 9.2 퍼센트, 그리고 30歲를

19) 朴丙台, 崔炳陸, 權豪淵: 1976年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8.

20) Parsons, et. al., *ibid.*

21) 朝鮮日報: 1982年 12月 19日字 朝刊 4面, 토목.

22) Guttmacher, A. F.: Fertility of Man, Fertility & Sterility, 3:281, 1952.

넘어서 結婚한 婦人은 겨우 0.3퍼센트에 不過하다. 이처럼 妊娠能力이 떨어지는 年齡, 即 不妊症의 危險이 높은 年齡에서 結婚한 婦人은 極少數이기 때문에 一旦 原發性 不妊症의 婦人이 比較的 적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Table 1. Percent Distribution of Currently Married Women by Age at First Marriage

Age at First Marriage	No. of Women	Percent
- 14	36	1.0
15-19	1,189	33.1
20-24	2,030	56.4
25-29	332	9.2
30+	11	0.3
Total	3,598	100.0

Data Source: Analysis of 1978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美国은 不妊症患者中에 原發性不妊症이 67.2~84퍼센트이고 流産이나 分娩後 3年이 지나도 다시 妊娠을 하지 못하는 統發性不妊症은 16~32.8퍼센트로 前者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原發性不妊症이 70퍼센트에 統發性不妊症이 30퍼센트가 된다고 한다.²³⁾ 이와같이 原發性 不妊症이 多數이고 또한 原發性不妊症은 子女를 한 번도 出産하지 못했다는 点에서 더욱 關心을 기울여야 할 対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婦人들에 대한 不妊症患者의 統計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婦人들의 妊娠能力 所有與否에 대한 反應을 토대로 妊娠不能狀態를 考察하고 이들중에 妊娠의 經驗이 전혀 없거나 子女를 갖지 않은 婦人들의 現況을 檢討해 본다.

1978年度 家族計劃 및 出産力實態調査 資料에서 対象有配偶婦人 3,603名의 妊娠能力 狀態에 관한 応答結果에 의하면 <表2>에 나타난 바와 같이 不妊手術이 15.2퍼센트, 妊娠不能이 9.7퍼센트, 妊娠可能이 66.9퍼센트 그리고 나머지 8.2퍼센트는 不確實하다는 内容이다. 여기에서 9.7퍼센트의 妊娠不能中 閉經 (5.5%)과 其他理由 (0.5%)를 除外한 男便 또는 婦人自身の 身体的 条件 때문이라는 応答은 3.7퍼센트에 不過하다. 婦人들 스스로의 自己判斷에 의한 応答 結果이지만 이들 3.7퍼센트의 婦人은 一旦 不妊症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76年度 全國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에서는 <表3>에 나타난 바와 같이 対象婦人이 6,020名이며 既婚婦人들로서 無配偶婦人도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78年度の 有配偶婦人과의 直接的인 比較는 一致性이 完全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變數의 分類도 78年資料

23) 李熙永, 裴炳燾: 前掲書, pp.14-15.

와 약간 다르다. 그러나 妊娠이 可能하다고한 応答에서 나타난 8.5퍼센트의 數値를 比較해 보면 이는 78年の 9.7퍼센트보다 약간 낮은바 이는 全體의 6.3퍼센트나 되는 死別, 離婚, 別居婦人들이 分母數에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어 一般的으로 妊娠不能婦人의 比率이 9 퍼센트~10퍼센트 水準으로 거의 一致됨을 推定할 수 있다. 한편 76年の 妊娠不能婦人 8.5퍼센트에서 78年度의 閉經率을 그대로 適用하여 5.5퍼센트를 減한다면 3 퍼센트 水準의 婦人들이 不妊症인 것으로 推定되므로 78年の 3.7퍼센트 水準보다는 낮은 것이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보아 76年 및 78年の 資料사이에 別 差異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不妊症患者 比率이 美國의 例와같이 10퍼센트 水準까지 높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妊娠可能狀態의 比率은 <表3>의 1976年資料에 의하면 現在 妊娠中인 婦人 8.7 퍼센트를 包含해서 77.9퍼센트에 達하고 <表2>의 1978年 資料에서는 妊娠可能婦人 66.9 퍼센트와 不確實하다는 婦人 8.2퍼센트까지 合해서 75.1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不確實하다는 応答群에서 妊娠可能婦人이 絶對 多數일것으로 断定할 수는 없지만 이런점으로 미루어 보아 不妊症인 婦人이 多數 包含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不妊手術을 받은 것으로 応答된 婦人이 76年보다 78年 資料에서 9.7퍼센트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78年度의 応答婦人 가운데 妊娠可能婦人의 比率이 큰 것이지만 76年度의 応答 婦人은 既婚婦人이었기 때문에 死別, 離婚, 또는 別居中인 婦人 6.3퍼센트가 包含되어 余他變數值의 比率을 낮춘 要因이 되므로 앞에서의 推測에 無理가 없다. 實例를 들면 76年の 妊娠可能婦人比率 77.9퍼센트가 6.3퍼센트의 死別, 離婚, 別居婦人을 除外한 有配偶婦人

Table 2. Percent Distribution of Current Married Women by Fecundity Status.

Fecundity	Percent
Sterilization	15.2
Infertile	9.7
Physical reason	(3.7)
Menopause	(5.5)
Others	(0.5)
Fertile	66.9
Not sure	8.2
Total	100.0
(N)	(3,603)

Data Source: Analysis of 1978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에 대한 比率에서는 83.1퍼센트 로 늘어나는 計算이기 때문에 이는 78年度의 75.1퍼센트 水準보다 무려 8.0퍼센트 포인트가 높다. 이러한 隔差는 76年度에 比한 78年度 不妊施術 率의 差異 7.9퍼센트 포인트보다 높기 때문에 78年度의 妊娠可能婦人 比率이 그만큼 相殺된 것으로 看做해도 實際 妊娠可能 比率은 76年度보다 높지 않다는 計算이 된다.

Table 3. Percent Distribution of Ever Married Women by Fecundity Status

Fecundity Status	Percent
Sterilization	7.3
Widowed, Divorce, Seperate	6.3
Infertile	8.5
Fertile	69.2
Current pregnancy	8.7
Total	100.0
(N)	(6,020)

Data Source: Park, B. T. et al: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8, p. 43 Table 3-6

婦人들의 妊娠能力 狀態를 <表 4> 및 <表 5>에서와 같이 年齡別로 区分해 보았다. 既婚婦人과 有配偶婦人이라는 對象의 差異에 대한 깊은 考慮를 하지 않아도 年齡別 各 變數 값의 構成이 全体값에 比例하여 兩年度資料가 거의 같은 패턴으로 分布되었음을 一瞥할 수 있다.

Table 4. Percent Distribution of Married Women by Age and Fecundity Status

Fecundity Status	Age of Women							Total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Sterilization	-	1.6	11.9	14.4	24.9	12.0	6.1	15.2
Infertile	-	0.3	0.3	2.1	6.2	14.1	46.1	9.7
Physical reason	-	(0.3)	(0.1)	(1.8)	(5.5)	(6.4)	(9.2)	(3.7)
Menopause	-	-	(0.2)	(0.3)	(0.3)	(6.4)	(34.8)	(5.5)
Others	-	-	-	-	(0.4)	(1.3)	(2.1)	(0.5)
Fertile or not sure	100.0	98.1	87.8	73.4	68.9	74.0	47.8	75.1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9)	(372)	(703)	(703)	(723)	(612)	(437)	(3,603)

Data Source: Analysis of 1978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 Due to rounding error, this column does not add to exactly the total shown.

Table 5. Percent Distribution of Ever Married Women by Age and Fecundity Status

Fecundity Status	Age of Women							Total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Sterilization	-	1.0	4.2	11.0	12.1	7.4	4.9	7.3
Widowed, Divorce, Seperate	-	0.2	1.1	2.4	5.8	10.2	20.8	6.3
Infertile	-	0.2	0.6	1.2	5.2	13.4	36.3	8.5
Fertile	63.3	72.2	74.5	79.2	73.9	68.7	38.0	69.2
Current pregnancy	36.7	26.4	19.6	6.2	3.0	0.3	-	8.7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0)	(607)	(1,232)	(1,150)	(1,182)	(1,025)	(794)	(6,020)

Data Source: Park, B. T. et al: 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8, p. 43, Table 3-6.

本章 첫머리에서 記述한 年齡別 妊娠能力(Fecundity)의 差異와 같이 30歲 未滿의 婦人들은 妊娠能力이 旺盛하여 妊娠不能婦人의 比率이 極히 낮고, 30歲 以上の 年齡群에서는 妊娠不能比率이 漸次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女性의 平均 初婚年齡이 23歲 水準이고²⁴⁾ 30歲 以上에서 結婚한 婦人은 겨우 0.3퍼센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原發性 不妊症은 相對的으로 더욱 낮을 것으로 推測되며 오히려 統發性 不妊症이 높다고 評價할 수 있다.

한편 妊娠치 못한 젊은 婦人中에는 結婚生活 1年 또는 그 以上을 지났으면서도 자신이 妊娠能力이 있다고 생각하여 妊娠可能하다고 回答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겠지만 結婚生活 1年未滿인 婦人도 調査応答對象에 包含되어 있고 나아가서 結婚期間別 子女數, 妊娠 또는 現存子女數의 現況에서 全般的으로 不妊症患者의 比率은 크게 높지 않다는 事實을 窺아볼 수 있다.

먼저 婦人들의 結婚期間別 現存子女數 現況은 <表 6>과 같다. 6,020名의 既婚婦人 가운데 現在 子女를 한명도 갖지 않은 婦人은 5.9퍼센트에 不過하다. 그것도 結婚期間이 오래된 婦人들의 境遇는 極히 比率이 낮고 5年未滿인 婦人들 가운데 24퍼센트의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結婚期間이 1年도 못되는 婦人들이 包含되었기 때문이고 不妊症에 의하여 비롯된 結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結婚期間을 每5年間隔으로 나타낸 百分率에서 5-9年인 婦人가운데 子女가 없는 婦人은 2.5퍼센트이고 結婚期間이 그 以上인 婦人

24) 南岳鈔 等: 人口・保健指標,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p. 15.

들의境遇는各年齡群마다 2 퍼센트 未滿의 낮은 比率임을 알 수 있다.

Table 6. Percent Distribution of Ever Married Women by Number of Living Children

No. of Living Children	Duration of Marriage(Year)						Total
	- 5	5 - 9	10-14	15-19	20-24	25+	
0	24.2	2.5	1.4	1.8	1.0	0.7	5.9
1	50.0	9.4	4.4	3.3	3.6	1.6	13.4
2	24.5	46.9	14.7	8.8	5.6	6.8	19.4
3	1.2	34.3	37.5	20.5	13.7	18.5	19.7
4	-	6.3	30.2	30.4	28.5	28.4	17.7
5 +	0.1	0.7	11.8	35.2	47.6	40.7	23.9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 150)	(1, 223)	(1, 053)	(908)	(815)	(871)	(6, 020)

Source: Park, B. T. et al:1976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Evaluation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1978, p268, Table A-10.

*Due to rounding error, this column does not add to exactly the total shown.

1978年度資料에 의한 無子女 및 妊娠經驗이 없는 婦人の 比率은 <表 7>과 같다. 3,603 名의 有配偶婦人 가운데 現在 子女를 갖지 않은 婦人이 5.7퍼센트로서 前述한 76年度の 5.9 퍼센트와 비슷한 水準이다.

그러나 妊娠의 經驗이 없는 婦人은 2.1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相当수가 現在 妊娠

Table 7. Percent Distribution of Current Married Women by Number of Living Children and Number of Pregnancy

Number	Living Children	Pregnancy Experience
None	5.7	2.1
1	12.5	9.2
2	19.8	11.3
3 +	61.9	77.4
Total	100.0*	100.0
(N)	(3, 603)	(3, 603)

Source: Analysis of 1978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Survey,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Due to rounding error, this column does not add to exactly the total shown.

中임을 推測할 수 있다. 물론 妊娠을 했으나 出生이 아닌 流産 또는 死産으로 終結된 境遇와 出産後의 死亡으로 인하여 妊娠과 現存子女數間의 隔差도 考慮할 수 있다.

그러나 子女가 없는 婦人들의 境遇이므로 이 보다는 現在의 妊娠에 의한 差異가 主된 것임을 쉽사리 理解할 수 있다.

아무튼 現存子女가 없는 婦人이 6 퍼센트 未滿인 것으로 보아도 여기에 結婚生活 1年 未滿의 婦人이 包含되어 있다는 事實을 考慮한다면 不妊症에 의하여 子女를 하나도 갖지 못한 婦人은 이보다 훨씬 낮은 比率임이 確實하다고 본다.

4.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 婦人들의 不妊症患者 統計는 아직 提示된 바 없다. 그러나 出産力 및 家族計劃 實態調査에서 応答된 婦人들의 妊娠能力 狀態 및 現存子女數나 妊娠經驗 等に 비추어 볼 때 不妊症患者의 比率이 5 퍼센트 未滿의 낮은 水準임을 推定할 수 있다.

即 1978年度 資料分析에서 応答婦人들의 身體的 條件에 의한 不妊狀態의 婦人이 3.7퍼센트이고, 1976年度資料에서도 妊娠 不能婦人 가운데 1978年度 閉經率을 適用하여 이를 除外하면 身體的 條件에 의한 不妊症婦人이 3 퍼센트 水準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妊娠能力이 旺盛한 30歲 未滿에서 거의 大部分의 女性들이 結婚하고 結婚期間이 10年 以上이 되는 婦人들은 子女를 갖지 않은 比率이 2 퍼센트 未滿으로 極히 낮다는 事實과 全体的으로는 無子女 婦人이 6 퍼센트 未滿이라는 實態 등에서 妊娠을 못하는 婦人들의 比率은 5 퍼센트 水準에서 크게 밑돌것으로 推測 된다.

이러한 水準은 美國의 統計가 10퍼센트 水準을 示顯하는데 比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보며 國內에서 가끔 10퍼센트 수준으로 提示되는 境遇에 比해서도 마찬가지로 現象이다. 그러나 이러한 推定은 正確한 統計를 提示하지는 못한다.

끝으로 不妊症統計에 관한 이러한 취약성을 除去하기 위하여 全國規模의 計劃的인 調査研究가 實現되어야 함을 提言하는 바이다.

参 考 文 献

- 金錫煥, 産婦人科学, 一朝閣, 1968.
- 金海龍, 尹憲植, “女性不妊症에 대한 外来的 考察” 大韓産婦人科学会雜誌, 3 : 1, 1975.
- 南喆鉉等, 人口·保健指標,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 文英基, “不妊症에 있어서의 内膜性因子,” 中央医学, 35 : 3, 1978.
- 朴丙台, 崔炳睦, 權豪淵, 1976年 全国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8.
- 卞鍾和, 高甲錫,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産力 実態調査, 家族計劃研究院, 1979.
- 柳聖鉉等, “不妊女性에 있어서 Clomiphene 治療에 대한 臨床的 考察,” 大韓産婦人科学会雜誌, 24 : 9, 1981.
- 李教雄, “不妊症의 統計的 考察,” 大韓産婦人科学会雜誌, 7 : 7, 1964.
- 李恩淑, “韓國不妊婦 1,520名에 대한 原因的 考察,” 大韓産婦人科学会雜誌, 7 : 7, 1963.
- 李鶴松, 李熙永, 家族計劃, 東明社, 1966.
- 李熙永, 裴炳胃, 不妊症의 原因과 治療, 寿文社, 1976.
- Benzamin, Annette Francis and Bry Benzamin, New Fact of Life for Women, U. S. A., 1969.
- Cherry, Sheldon H., Understanding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Books Merill Company, Inc., New York, 1973.
- Guttmacher, A. F., “Fertility of Man,” Fertility and Sterility, 3:281, 1952.
- Novak, Edmund R., Georgeanna S. Jones and Howard W. Jones, Novak's Textbook of Gynecology, The Williams & Wilkins Company, U. S. A., 1975.
- Parson, Langdon and Sheldon C. Sommers, Gynecology, 2nd ed., W. B. Saunders Company, Philadelphia, 1978.
- Whitelaw, M. G., “Statistical Evaluation of Female Sterility,” Fertility and Sterility, 11:428, 1960.

《Abstract》

Study on The Infertility Rate of Korean Women

Moon-Sik Hong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Taek Il Kim

President, Hallym College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Korean family planning program is to assist parents in having the number of children they want, both by providing fertility-enhancing services to infecund and subfecund women and by providing fertility-limitation services to fecund women. As far as fertility-enhancing services to infecund and subfecund women is concerned,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from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So far, there is no any basic data on infertility prevalence rate among the Korean women. Therefore, an attempt has been made to review data of 1976 and 1978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surveys in order to estimate the level of infertility rate among the Korean women.

In the 1978 survey 3.7 percent of the current married women responded that they were physically infertile while in the 1976 survey physically infertile women was calculated as 3 percent of the total ever married women which is similar level of 1978 data of 3.7 percent. Mean age at first marriage of Korean women is 23 and most of the women are married in the highly fecund age. Only 0.3 percent of the respondents married age 30. In addition, the rate of women with no children among the ever married women whose marriage duration is more than 5 years is very low; 2.5 percent among 5-9 years, 1.4 percent among 10-14 years; 1.8 percent among 15-19 years; 1.0 percent among 20-24 years; and 0.7 percent among 25 or more years of marriage duration.

If we consider those data shown above, it is manifest that infertility rate of Korean women is less than 5 percent level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10 percent level of infertility rat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ever, this kind of estimation is still not able to show definite data on fertility rate. Therefore, a nationwide planned survey should be carried out as early as possible to figure out the real situation of infertility rate in Korea.